

칼럼

장기채 주필



올 추석에는 아버지의 손 한번 꼭 잡아보자

이제 올 추석도 한 달여다. 행여 임금을 못 받아 마음고생 하지 않을까. 근로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과 딸린 식솔의 생계를 이어갈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들이 빈손으로 명절을 맞이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는 8월 말까지 체불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올 추석에는 아버지의 손을 꼭 한번 잡아 보세요 그리고 엄마를 외라 안아 보세요

그 마음이 추석 아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가난 속에서도 부모를 봉양했고 아이들을 서넛 이상 낳아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50년 전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00배가 늘어도 부모를 건사하기는커녕 비싼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부모도 모시지 못하겠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면 5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일까. 그런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쓸

쓸한 시대지만 올해도 여전히 추석 앞두고 성묘객들로 휴일 고속도로가 정체될 것이라는 소식은 그래도 반갑기만 하다.

올 명절도 썰렁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그래도 조상님 차례상에 술 한잔 올리며 가족이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쓸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오죽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식들 얼굴이나 봤으면” 하는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올까. 추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큰 명절이다.

일 년 동안 가꾼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빻어 나눠 먹었다고 해서 속담 중에 ‘일 년 열두 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팔월 한가위야말로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다. 또 우리네 세시 풍속의 하나로 ‘아홉 차례’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십 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은 모자라게 사는 구분 철학(九分哲學)은 우리 한국인이 터득하고 살아온 처세 철학이다.

인생에 있어 욕심이나 돈, 권력, 명예 등을 적정한 선에서 자제해야지 가득 채우려 하면 무(無)로 돌아간다는 구분 철학의 구현인 것이다.

어쨌든 녹리지 않은 형편이지만 모처럼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운 이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가위는 여전히 축복의 시간일 것이다.

이번 추석에는 황금연휴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끼여있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한가위날 이른 아침이면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 수확한 햇곡식과 색색으로 물들인 ‘송편’으로 차례상을 마련해서 조상님과 신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올린다.

달 밝은 저녁에는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모여 흐뭇한 추석

놀이를 즐긴다.

이날은 송편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만월과 같은 둥근 모양의 ‘월병’을 만들지만 우리는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는다.

반달은 그것이 날마다 커지므로 발전의 상징으로 본 데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고대 도성(都城) 이름이 대부분 반월성(半月城)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달과 가장 친한 나라를 들자면 우리를 앞설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달 밝은 한가위 풍속은 옛날과 같게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요즘처럼 자꾸만 차갑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추석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차례를 지내는 일은 뜻깊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이다.

그러나 이제는 못 살던 과거와는 달리 의식(衣食)이 풍부하며 근심 걱정 없이 비교적 안락하게 살지만 조상 숭배와 부모님 찾아뵙는 일은 식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차례와 성묘하는 일은 세월이 흐른다고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그간 고향을 등졌거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너무 외롭게 헤드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가위 세시 풍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社 說

연말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나와야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시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보회의 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식 언급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관이 어디로 내려갈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구는 작년 말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값은 내려갈 줄 모르고 외려 오르는 이유도 수도권 과밀화가 한몫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도 가능한 많은 공공기관

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 19개 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전 기관 종사자 수는 5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추가 이전의 당위성에도 그 전방이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내년엔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옮겨 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잡음이 일고 정치 쟁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강력한 실행 의지 아래 합리적 절차와 예산만 뒷받침되면 추진하기 쉽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흐지부지 말로만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권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광2)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 갓길 작업 공공근로자 ‘위험천만’

도로변 잡초 제거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도로 갓길 통행을 하거나 작업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형광색깔 조끼를 입은 공공근로자들이 인도 옆 화단 정비에 나서는 광경

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작업이 종종 갓길에서까지 이어지거나, 차로 옆을 통해 이동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인근에서는 ‘작업

중’ 등의 안내 팻말을 찾아볼 수 없어 차량들이 작업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공근로 참여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로 이뤄져 있어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도로 갓길 작업은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인근에 ‘작업 중’이라는 안내 팻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후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에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